P.I.R.A.M

P.I.R.A.M
서평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할 때, 감을 유지하기 위해 본 책의 초판을 풀었던 인연으로 2021학년도 개정판에서는 비문학 편의 전 부분을 풀어보며 검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 드리건데, 저자가 책을 통해 강조하는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결국 수능이나, 더 넓게 본다면 법학적성시험에서도 최상위권 응시자들에게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일지라도, 자신 안에 내재된 방법론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과 단순히 자신이 푸는 것에 적용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본 서적은 최상위권 응시자들에게 내재되어있는 '필연적인 사고'를 보편적인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난이도로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은 최상위권의 지문 읽는 방법과 이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과정과 비교해보며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검토를 하며 '솔직한' 교재라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국어 기출 교재는 평가원에서 공개한 정답에 맞춰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해설만 제공합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를 푼 사람의 사고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과정을 점검, 비교, 생각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는 저자 본인에게도 어려운 부분은 '솔직하게' 밝히고 선생인 저자도 이 정도까지만 해석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깔끔하고 현학적인 교재가 아니라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만든 '솔직한 교재'라는 점에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교재라고 추천합니다.

(주현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처음 피램 교재를 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여느 다른 교재와 강의처럼 빠르게 끝내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책만 공부한다면 수능 국어는 마스터하지 않을까, 라는 꿈에 부푼 기대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었죠.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중의 다른 교재나 강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학생에게 있어서는 가히 압도적인 퀄리티와 개념으로 꽉꽉 채워진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하고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단순히 내가 세운 수능 국어 공부 커리큘럼 중 하나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교재의 설명과 수능 국어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을 생각하며 공부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에서 설명하는 사고 방식과 수능 국어의 정답 논리를 체화시키며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나가기까지, 그 시간과 노력은 고되지만 이후의 수능 국어는 어쩌면 가장 논리적이고 재미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러했구요.
수능 국어에 있어서의 태도와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바이블이며, 어쩌면 앞으로의 수능 국어의 모든 내용과 본질이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전에 책을 처음 공부했을 때 느꼈던 설렘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본 교재를 직접 검토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회독 수에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이 책을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냈는가'에 맞추어 천천히 설명을 음미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영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백분위 10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교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더 냉혹할 겁니다.
손바닥 가득히 땀이 배어서 샤프가 미끄러지거나, 시야가 끝없이 흔들려서 재차 눈을 비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능 시험장에서의 국어 시험은 텍스트를 읽는 느낌이 아니라 텍스트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 문제를 푸는 느낌이 아니라 더 마음에 끌리는 선지를 '선택하는' 느낌만을 남긴 채 쏜살같이 끝이 납니다. 속절없이 '스쳐 지나가는' 얄미운 문제들 속에서 정답을 빠르게 '선택'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P.I.R.A.M 국어' 는 혼자서는 깨닫기 어려운, 하지만 알고 나면 명명백백한 원칙들을 조곤조곤 아낌없이 설명해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신현진, 온라인 문학 검토자)

검토를 하다 저도 모르게 정독하며 공부했습니다. 분명 텍스트를 읽고 있지만 옆에서 누가 직접 알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책은 P.I.R.A.M 국어가 처음입니다. 수능 국어 독학서로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최지웅, 온라인 비문학 검토자)

CONTENTS

교재의 사용법 008P

P (reliminar) step

1. 원칙의 중요성 – 우리는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016P
2. 문학 개념어 정리 020P
3. 기본 도구 정리 034P

I (mprove) step

1. 허용 가능성 평가 044P
2. 운문문학 해결하기 049P
3. 산문문학 해결하기 070P

R (einforce) step

1. 어려운 현대시 104P
2. 필수 고전시가 114P
3. 길고 긴 지문 128P

A (dvance) step

1. 상세한 내용일치 154P
2. EBS 연계의 함정 172P

M (aster) step

1. 행동 양식 총정리 184P
2. 2020학년도 수능 188P

교재를 마무리 한 후 198P

4. 이 교재를 공부할 때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① 수강생 카페에 대해

→ 제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의 국어 공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교재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 자료와 질문 답변 등이 이루어 집니다. 카페에 가입하신 후, 교재를 구매하셨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해당 자료 및 질문 답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해당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piramgukeo

② 시간 제한에 대해

→ 이 교재로 공부할 때는 굳이 문제풀이 시간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충분한 시간을 써서 고민하세요. 나름대로 지문을 읽을 때의, 그리고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뒤에 해설지를 보며 비교해 주세요. 문제만 빠르게 쓱 풀고 해설지를 보시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M step에서는 시간을 재고 풀어볼 겁니다. 실전의 느낌을 내며, 시간 제한 속에서도 내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니까요.

③ N회독에 대해

→ 이 교재는 굳이 N회독(여러번 다시 보면서 복습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1회독을 끝내신 후에, 이 교재는 그 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꺼내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 생각하시면 N회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풀어본 문제 위에 다시 풀기는 곤란할 테니, 이 교재에 있는 지문만 따로 편집한 복습용 파일을 위에서 언급한 카페에서 제공해드립니다.

④ 해설과 실전의 괴리에 대해

→ 이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시다보면, 해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해설은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인 상태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제 해설만큼 읽어내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고르는 과정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완전 똑같이 사고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상적인 상태로 도달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수능날에도 그 이상에 그나마 가까운, 즉 답을 모두 골라내는 정도의 독해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이상적인 독해' 에 다가가려고 최대한 노력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⑤ 생각합시다!

→ 이 교재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생각의 틀' 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머리가 터질 듯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처음엔 '이걸 왜 강조하는거지?' 싶다가도, 생각하며 따라오면 결국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이해될 겁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⑥ 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 최근 한국의 실질문맹(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동영상, 토막글 같은 자극적 매체의 발달이 그 원인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3줄 요약' 이라는 것이 유행할 정도이니, 조금 신경을 써야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읽기를 귀찮아하고, 이해하기를 게을러 한다면 국어 영역 점수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도 큰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이 교재에는 텍스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 텍스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글자를 읽고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문학 개념어 정리

문학 정복을 위한 원칙 공부에 나서기 전에,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다뤄 봅시다.

학생들은 문학 개념어를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기 귀찮은 것,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문학 개념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수능에서 쓴 맛을 보기도 하죠.

사실 맞습니다. 문학 개념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끝이 없고, 헷갈리기만 하면서 귀찮습니다. 개념어에 대한 연구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파트거든요. 예를 들면 '단호한 어조' 라는 개념이 있을 때, 어디까지가 단호한 어조라고 할 수 있나요? '너는 지금 길을 걷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한 어조인가요 아닌가요? 단호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라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이 문학 개념어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건 '문학' 이 아니라 '수능 국어영역 문학' 입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이렇게 애매한 것을 출제해서 여러분의 '생각' 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수능에 출제하지, 논란이 있는 내용을 출제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능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는 '사전적 정의' 와 같은 뜻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근거라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문학 개념어는 대부분 여러분의 어휘력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서의 환기' 라는 개념어가 있으면 '환기' 의 사전적 정의인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에 맞추어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평소에 모르는 어휘는 찾아보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 있으면 생각보다 문학 개념어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혹은 학생들의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나 더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는 개념어들도 존재합니다. '색채 대비' 가 그런 예시인데, 우리는 '대비' 라고 하면 흰색–검은색 혹은 파란색–빨간색처럼 '반대' 된다고 생각하는 색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흰색–초록색' 처럼 통상적으로 '대비' 된다고 인식되는 색이 아니라도 '색채 대비' 로 인정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휘력의 측면' 에서 문학 개념어를 바라 봐야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 되겠네요.

이 교재에서는 사전식으로 모든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출되었던 선지만 가지고 이야기 해볼게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국어 영역' 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 즉 '2014학년도' 시험부터 작년 9월 모의평가까지(작년 수능은 M step에서 풀어 봐야 하니까 제외할게요.)만 해 봅시다.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내 손으로 만드는 문학 개념어 사전' 이 있을 텐데, 그곳에 배운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문 문학)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명령형 : '~해라' 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허용 가능합니다. / 주제 의식 부각 : 시의 모든 표현은 주제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 의식 부각' 은 모든 시에서 허용 가능합니다.

* 이렇게 '모든 시에서 허용 가능' 한 선지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나올 때마다 표시해 드릴 테니 모두 정리해 두세요.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시골의 느낌이 나면 허용 가능합니다. (ex. 흙 냄새..)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행의 길이가 한 글자라도 변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 동일 : 토씨 하나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cf) 유사 : 대~충 비슷하면 됩니다. / 유기적 결합 :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가 있으면 두 시구를 연관 지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유기적이죠? 당연히 허용 가능합니다. (어휘적 측면으로 생각합시다!)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 문학)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라는 표현, '나' 가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전지적 시점이 되려면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 및 심리, 그리고 그 근거까지 싹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관찰자는 심리와 그 근거를 모르고 있겠죠?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합시다.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회상 : 과거 이야기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 외부 이야기 : 주로 서술 중인 세상이 아닌 이야기 / 내부 이야기 : 주로 서술 중인 세상의 이야기 / 외부, 내부 이야기의 경우 시험장에 실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구별하기 쉬울 겁니다. 조금 애매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은 외부 이야기가 '과거' , 내부 이야기가 '현재' 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현재' 가 주로 서술되는 시점일 테니까요. 물론 소설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이니, 이 선지 내에서 '외부, 내부 이야기' 를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주로 서술된다' 라는 포인트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입체감을 부여한다는 건 여러 사건이 겹쳐져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 과거라는 층과 현재라는 층이 입체적으로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현재' 의 교차 외에도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모습 등이 나오면 '입체감 부여' 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념어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허용되는 범위를 이해하셔야 해요.

소설의 시점

1인칭 ┬ 주인공 : 서술자가 주인공. '나'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소설이 '나' 의 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 관찰자 : 서술자가 주변 인물. '나'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나' 가 심리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인물을 관찰하기만 함

3인칭 ┬ 관찰자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 관찰만 할 수 있어서 인물들의 심리 상태, 그 이유 등을 잘 알지 못함.
　　└ 전지적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 전지전능하므로 모든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이유 등을 알고 있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서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 상태와 그 이유 등을 알고 있는지예요. 관찰자는 다른 인물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38.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문 문학)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수미상응(수미상관)과 다름. 수미상관은 '비슷한 내용' 이면 됩니다. → 31번 문제의 '유사' 와 비슷한 개념. 반면 이 선지의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 은 토씨 하나까지 '동일' 해야 합니다.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근경에서 원경 : '화자의 시점' 에서 가까운 곳 → 먼 곳 / 심리의 변화 :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관적이었는데 희망이 생겼다거나, 슬펐는데 극복했다거나 등등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 문학)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넓은 범위로 보셔야 해요.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간다든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다든지하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죠?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서술자의 개입 : 인물의 대사나 생각이 아닌 '서술자' 의 생각. 소설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 압축적 제시 : 어떤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는 선지들, 그리고 싣지 않은 문제들은 어휘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개념어들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헷갈리는 부분만 질문해 주세요.

1 허용 가능성 평가

본격적으로 문학을 정복해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수능 문학 문제풀이의 대원칙부터 세워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만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하시면, '문학이 어려워요.' 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봅시다.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다 맞는 것? 해석을 기똥차게 해내는 것?

저는, '빠르게' (15~20분 내외) 다 맞히는 정도가 되어야 '문학을 잘한다' 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 시험에서 결국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요소는 '비문학' 이고, 애초에 요구하는 사고의 깊이가 차원이 다른 비문학에선 시간을 확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기'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 교재로 공부하면서 단순히 '정답률이 올라갔다' 가 아니라 '빠르게 다 맞는다' 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신문 기사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기사이자 '미국인도 틀리는 수능 영어?!?' 와 함께 수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 **OOO 시인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 – '모의수능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가' 문학교육에 쓴 소리
> OOO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온 대입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작가인 내가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 그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

아마 관련 내용을 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명 시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모의고사에 나온 본인의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모두 틀리자 '시인도 틀리는 수능 문학!' 이라는 프레임으로 수능을 공격한 사건이죠.

일단 이 기사 내용은 해당 문제가 수능 문제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도 아닌 '교육청 문제'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판 속에는 수능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수능 문학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철저하게 '문학' 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고자 노력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인 영역입니다. 하나의 작품이나 단어, 문장에 대해 감상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감상자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가진 배경지식, 또 감상할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이 반영되어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고 합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시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 같으신가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은, '내 마음이 넓다.' 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기도 하고, 호수의 넓다는 속성을 이용한 훌륭한 해석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호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푸른 산 속에 노루가 뛰어놀고, 그 산 속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 그 호수의 물을 먹는 노루들이 뛰어 노는 '평화롭고 깨끗한 분위기' . 이런 이미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깨끗하다' 혹은 '마음이 평화롭다.' 라고 해석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구에 대해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해석 중, '맞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 개 다' 입니다. 셋 다 호수의 이미지를 생각 했을 때 딱히 틀린 게 없는, 충분히 '허용' 할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이렇듯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다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수능' 이잖아요? 수능이 어떤 시험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을 '평가' 하고 '등급' 을 나누기 위한 시험입니다.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이라면 당연히 '정답' 과 '오답' 이 있어야하고, '정답' 과 '오답' 이 있으려면 또 당연하게 '틀린 선지'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라면, 수능 문학 시험에서 틀린 선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관성을 인정한다면 모든 선지가 다 '허용' 할 수 있는, 딱히 틀린 것이 없는 것들이 될 테니까요. 평가원은 여기서 고민했을 겁니다. 문학의 본질적 속성인 '주관성' 을 인정하면서 '틀린 선지' 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고민 끝에 평가원이 선택한 방법은, '개소리 만들기' 였습니다. 이 개소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팩트로 따졌을 때 틀린 소리' 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문학에서 객관적인 팩트만으로 판단했을 때 틀린 선지가 수능 문학에서의 '틀린 선지' 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봅시다. '내 마음이 호수요.' 라는 시구를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라고 해석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이 해석은 개소리가 되겠죠? 호수는 누가 봐도 물인데,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했으니 '누가 봐도 틀린 선지' 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보기〉나 다른 시구에 의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 시구만 보고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런 선지를 찾는 것이 수능 문학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이러한 '허용'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 작품을 확실하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친절하게도 해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기〉와 선지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마음이 깨끗하다' , '마음이 평화롭다.' , '마음이 넓다.' 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마음이 불타고 있다.' 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걸 찾으려면, 호수가 물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우리가 굳이 '호수가 넓다' 는 해석을 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호수가 넓다' 는 말을 보고, '음 이 정도면 딱히 틀린 게 없네.' 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지의 해석을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문학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가' 하는 것이다!

이제 위의 기사가 왜 헛소리인지 아시겠죠? 수능 문학은 작가든 누구든 '본인의 해석' 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떠한 해석도 허용될 수 있다는 '주관성' 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선지들을 모두 '허용' 해줍니다. 작가의 생각은 딱히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허용'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보기〉 등을 통해 관점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요.) 다만 틀린 선지는 도저히 '허용'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틀렸다고 하면 문학의 본질인 '허용 가능성'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팩트' 에 기반한 내용일치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내야 문학의 본질적 속성도 지키고, '틀린 선지' 를 만들어야 하는 수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선지에 나와 있는 '다른' 해석을 '허용' 해주고, '틀린' 해석, DOG SOUND 들을 틀렸다고 '평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허용' 을 '뇌피셜' 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수능 시험은 이의제기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맞는 선지' 에는 근거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선지를 '허용' 하려면 반드시 지문에 '근거' 해야 한다는 거죠. 지문에 없는 말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문에 없는 말이라고 해도 지문에 있는 말을 '근거' 로 충분히 '허용' 할 수 있다면 그건 맞는 선지인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역시 예시를 들어 봅시다.

"민재는 어제 먹은 치킨이 또 먹고 싶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내용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래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 민재는 지금 배고프다.
2. 민재는 채식주의자다.
3. 민재는 엄마가 보고 싶다.

자 먼저, 이 세 해석의 정오를 판단해 보세요. 어떤 선지는 허용되고, 어떤 선지는 허용되지 않을까요?

되셨나요? 답은 당연히 oxx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 봅시다.

먼저 1번 선지. 지문 그 어디에도 민재가 배고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왜? '치킨을 먹고 싶다'는 근거가 있고, 이 '근거'에 의하면 민재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딱히 틀린 것이 없으니, '허용'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지문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그 선지의 내용을 허용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배 안 고파도 치킨 먹고 싶은데요?'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고프지 않다'도 딱히 틀린 건 없을 겁니다. 정확히는 '애매한' 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배고프지 않다'가 허용 가능하다고 해서 '배고프다'가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배고프다'가 딱히 틀린 게 아니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2번 선지. 이 선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어제 먹은 치킨'이라는, 민재가 채식주의자일리가 없다는 '근거'가 있고, 이는 결국 2번 선지를 틀린 선지, '개소리'로 만듭니다. 아 '근거'가 있어서 틀린 선지가 되기도 하는군요. 이 선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 없이 '팩트'에 기반해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마지막 3번 선지. 이런 선지가 가장 어렵긴 합니다. 이 선지는 '엄마를 보고 싶다'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1번 선지처럼 허용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역시 여러분 생각과 상관 없이 '팩트'에 기반해서 틀린 선지네요.

자 이렇게 푸는 게 '허용 가능성'을 이용한 풀이인데, 여러분이 주로 행하는 '뇌피셜'은 아래와 같습니다.

2번 선지 : 치킨은 어제 먹은 건데... 그럼 오늘부터 채식주의자라고 해도 틀린 거 없잖아? 그럼 이거 허용.
→ 오늘부터 채식주의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선지 : 치킨을 먹고 싶다라... 치킨은 보통 엄마가 사주실 테고... 그럼 민재는 치킨을 먹고 싶으니 그걸 사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도 틀린 거 없네? 이거 허용.
→ 이거 되게 웃긴 것 같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엄마가 치킨을 사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즉, 평가원의 선지 구성 방식에는 이 3가지가 있는데

1. 맞다고 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2. 절대 맞다고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3. 맞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여러분은 2, 3번을 '지문 속 근거'가 아닌, '머릿속 뇌피셜'로 허용해 버리니 문학이 주관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시험장에서 쫄아서 더 고민하게 되고, 시간은 흐르고... 비문학 한 지문은 날라가고... 등급은 2개 떨어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이제부턴 문학에서 뇌피셜로 쓸데 없는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팩트'에 기반해서, '맞다고 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틀렸다고 한다! 3번처럼 '근거가 없는' 경우 조금 애를 먹긴 하겠지만, 이 태도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다보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허용 범위'가 잡힐 겁니다. 그럼 그 뒤론? 문학에서 어떻게 나오든 웃으며 다 맞혀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런 이유로, '수능 문학'을 공부할 때는 '평가원 기출문제'만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청, 사설 문제 등은 어쩔 수 없이 수능과는 다른 '허용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질이 떨어진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출제자가 다르니까요.) 사설 문제는 여러분이 이 교재에서 말하는 '허용 기준'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생각될 때, 그때 건드려 주세요. 여러분이 사설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사설 문제를 푸는 의미가 생깁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러 갑시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3P

–2020.06 [32~36]

(가)

문장(文章)을 ᄒᆞ쟈 ᄒᆞ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ᄇᆡ호려 ᄒᆞ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ᄃᆡ 업ᄉᆞ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絕交)ᄒᆞ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ᄒᆞ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듕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헌ᄉᆞᄒᆞᆯ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ᄂᆞᆫ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ᄂᆞᆫ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ᄒᆞ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ᄒᆞᆯ 슨 아마도 풍진(風塵) **붕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ᄒᆞᆯ 슨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ᄭᆡ드른가 ᄒᆞ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ᄒᆞᆯ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骸歸)*ᄒᆞᆯ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ᄒᆞ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ᄒᆞ니 나도 몰나 ᄒᆞ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ᄒᆞ니 므스 일 머ᄆᆞᄂᆞ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ᄒᆞ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ᄂᆞᆫ 가려 정(定)ᄒᆞ니 일흥(逸興) 계워 ᄒᆞ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작비금시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도팽택 기관거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태부 걸해귀 :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부지지 :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솥발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깁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3.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가 '절교' 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 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붕우' 를 '절교'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백운' 과의 '위우' 를 통해 '무한지락' 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위우' 하고자 하는 '구로' 는 '물외에 연하 족' 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물외에 벗' 과 '위우'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4.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비호' 기 위해 '성대농포' 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② ㉡의 '나' 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굳센 쇠' 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 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 는 '깨끗한 것' 을 '길한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씨ᄃᆞ른가' 로 밝히고, ㉡의 '나' 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 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의 화자는 '풍우 다' 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 는 '시비의 소리' 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7P

-2019.11 [43~45]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
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
포장(褒奬)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C]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
세상에 났삽다가 ㉡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D]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裸)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 ┐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E]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지함 :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 줄기에서 벋어 나간 곁가지.
* 수괴 : 부끄럽고 창피함.
* 피봉 : 겉봉.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9P

–2018.11 [33~37]

(가)

반(半) 밤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뵌 듯ᄒᆞ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ᄒᆞ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ᄒᆞᆫ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ᄒᆞᆫ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ᄒᆞᆯ*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발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ᄒᆞ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긔 아니 조흘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ᄒᆞ야 시름겨워 ᄒᆞ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갓ᄒᆞ야 갈 길 몰라 ᄒᆞ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요양 : 청나라의 심양.
* 학가 :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ᄒᆞᆯ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성려 : 임금의 염려.
* 검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섶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매,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곽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았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A]
잎이 빳빳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 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 간죽하수문주인 :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뜻.
*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누추한 집.

1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20.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2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흔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23.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② [A]의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P.
I.
R.
A.
M.

2 EBS 연계의 함정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수능 문학의 모든 것을 익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학을 위해 따로 무언가를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확실하게 익히시고, 연습 또 연습해주세요. '평가원 기출문제'로만 말이죠!

다만 이 파트에선 조금 실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EBS 연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에 EBS 연계교재가 70% 정도 반영된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이에 국어영역에서 EBS 연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볼게요.

1. 화법/작문/문법 + 비문학 :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화법과 작문, 비문학의 연계는 '소재 연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EBS의 지문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푸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EBS 지문의 모든 내용을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영역의 EBS 연계교재는 한 번 풀어보고 비문학 제재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정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법은 문제풀이용 교재로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2. 문학 : 국어영역 EBS 연계의 핵심은 문학입니다. 많은 강사들, 학생들 모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와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각 갈래별로 출제되는 양상은 어떠한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① 현대시 : EBS 연계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전문이 지나치게 길어 어느 부분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고전시가와 달리 그리 길지 않은 원문 덕에 배웠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파트죠. 하지만 여기엔 생각해 볼 지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R step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 비연계이면서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문이 등장함 : EBS연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학년도 수능부터 보였던 경향입니다. 현대시가 연계될 경우 체감 난이도가 확 낮아진다는 것을 인지한 것인지 거의 항상 현대시 중 1개 이상은 비연계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학년도 이후부턴 이 '비연계 현대시'의 난이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의 '김수영 – 구름의 파수병', 2018학년도 수능의 '이육사 – 강 건너간 노래' 등의 비연계 현대시들은 모두 해당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고르게 이끌었죠. 결국 이런 '비연계이면서 난이도 높은 현대시'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I step과 R step에서 지겹도록 다뤘죠?

– 연계 지문이지만 '보편적인' 해석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출제함 : I step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듯이, 문학의 경우 '다양한 해석의 허용'이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각 문학 작품별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해석'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는 보통 이런 '보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집필됩니다. 이런 해석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만약 그 '보편적인 해석'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보기〉로 출제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를 공략하려면? 똑같습니다. EBS 연계에 기대지 말고, 현대시를 감상하는 태도 자체를 기르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B형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 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이 신석정이라는 점, ㉡에서 '서른여섯 해' 가 지나갔다는 점(1910년~1945년)을 미루어 보아 '일제 강점기' 에 대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는 독립운동을 하던 모습, 가슴을 쥐어뜯는 건 독립운동이 맘처럼 잘 되지 않아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는 동안에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팔아버린 벗들은 독립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친일파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6년이 지나 광복이 왔지만, 아직 겨울밤 달이 차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45년 광복 이후에도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으며 제대로 된 '독립' 을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꽃덤불이라는 진정한 독립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정말 잘 쓴 시죠.』

라고 당시 EBS 해설지 및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구요.

그렇게 이 시가 9평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로 문제를 풀러 갔죠. 그랬더니

2 2020학년도 수능

긴 말 않겠습니다. 바로 풀어봅시다.

시간은 20분을 재보도록 합시다! 딱 4지문입니다.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하면서 확실하게 풀어보세요. 난이도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미 풀어봤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결해봅시다.

먼저 20분을 재고 풀어 주시고, (만약 시간이 오버된다면 꼭 풀이를 멈춰 주세요. 본인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점을 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한 뒤 그 전까지 한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분석을 해 봅시다. 작년 수능 문제만큼 분석의 중요성이 높은 지문은 없으니까요.

또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뒤에는 오른쪽의 '자가 점검' 페이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가 점검

걸린 시간 : [ ] 분 / 20분

맞은 개수
[21~25] :
[30~32] :
[33~36] :
[43~45] :

틀린 이유 & 어려웠던 점
[21~25] :

[30~32] :

[33~36] :

[43~45] :

– 시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요소에 주목하며 답을 찾았는가?

– 소설의 4가지 포인트들을 착실하게 체크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해결했는가?

– 답을 고르기 힘들 때 선지들 간의 '애매함' 비교가 아닌, '상세한 내용일치'를 생각하며 답을 골랐는가?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33P

(가)

동녁 두던 밧긔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ᄒᆞᆫ 빗치 되야 잇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ᄒᆞ쟈스라**
블근 게 여믈고 **눌은 됨**기 ᄉᆞᆯ져시니
술이 니글션졍 버디야 업ᄉᆞᆯ소냐 [A]
전가(田家) 흥미ᄂᆞᆫ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예 **밤블이 ᄇᆞᆯ가시니**
㉠ 게 잡ᄂᆞᆫ 아히ᄃᆞᆯ이 그ᄆᆞᆯ을 흣텨 잇고
호두포* 엔 구븨예 **아젹믈이 미러오니**
㉡ 돗ᄃᆞᆫ빗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ᄑᆞᄂᆞᆫ 댱ᄉᆡ로다
경(景)도 됴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랴**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런ᄃᆞᆯ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려오랴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예 빗쵠 빗치 옥루(玉樓)라 다ᄅᆞᆯ소냐
청준(淸樽)을 밧쎄 열고 큰 잔의 ᄀᆞᄃᆞᆨ 브어
㉣ 죽엽(竹葉) ᄀᆞᄂᆞᆫ 술를 ᄃᆞᆯ빗 조차 거후로니
표연ᄒᆞᆫ 일흥(逸興)이 져기면 ᄂᆞᆯ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ᄒᆞ야 ᄃᆞᆯ을 보고 밋치닷다
춘하추동애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ᄒᆞ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륵이나 다ᄅᆞᆯ소냐
ⓐ 강호 어조(魚鳥)애 새 ᄆᆡᆼ셰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긔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ᄒᆞ노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 호두포 :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애내성 :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사조 : 사사로이 비춤.
* 모재 :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옥당금마 : 관직 생활.
* 몽혼 :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 '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 옛날 장건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ᄒᆞ쟈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게'와 살진 '눌은 ᄃᆞᆰ'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블이 ᄇᆞᆯ가시니'와 '아젹믈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릉'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② ⓐ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③ ⓐ는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④ ⓐ는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⑤ ⓐ는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37P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내려 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종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케 쏠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 늴큼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밑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빡의 눈깔 사탕만 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짝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맷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넋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④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① ㉠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② ㉡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③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④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⑤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P.I.R.A.M 해설지의 사용법

우리는 본교재에서 여러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정말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확실한 건 단순히 설명 보고 예시 몇 개 이해한 것으론 완벽히 체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산 이 교재의 내용을 확실하게 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생각' 하면서, 여기서 왜 이런 원칙을 사용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선지를 지울 수 있는지를 끊임 없이 '생각'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저야 물론 열과 성을 다해 해설지를 작성했지만, 본인의 고민 없이 그냥 읽고 '그렇구나~' 라고 하며 넘어가는 건 정말 의미 없어요. 본인 나름대로 모든 지문, 모든 문제에 '필연적인' 해설을 만든 다음 이 해설지를 보셔야 합니다. 해설지를 볼 때는 본인의 해설과 저의 해설을 비교하며,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잡을 수 있었는지, 두 해설 중 본인에게 더 잘 와닿는 해설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스스로 '생각' 하는 시간이 곧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단순히 많은 지문을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또 제가 좋아하는 예시를 들어봅시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스포츠뿐이라 맨날 이 쪽으로 예시를 드는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 슛을 배울 때를 상상해봐요.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아버지가 슛의 기본 원칙을 설명해 주었겠죠? 발등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한다, 임팩트 순간의 디딤발 위치는 어떻게 해야한다, 상황마다 공을 맞추는 부분이 달라야한다 등등... 이 원칙을 처음 배운 손흥민 선수는 그 뒤 엄청난 연습을 거쳤을 겁니다. 저 원칙을 '의식'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발등의 각도가 맞지 않고, 디딤발 위치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인사이드로 차야하는데 발등으로 차고...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연습했을 거예요. 저 원칙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피 나오게 연습하면서.

그리고 대망의 월드컵 무대. 손흥민 선수에게 슛 찬스가 왔습니다. 이때 슛을 하는 손흥민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차게 될까요? 과연 발등의 각도, 디딤발의 위치, 현재 상황에서 공을 맞추는 부분 등을 고민할까요? 그럴 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본인에게 체화된 원칙을 '본인도 모르게' 지키면서 완벽한 슛을 할 것이고, 이는 득점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순간마다 원칙을 생각하며 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축구보다는 순간순간 시간의 압박이 덜 하기 때문에 차분히 떠올려서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 '생각 없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순간 우리가 배운 원칙을 '본인도 모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능까지 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기계처럼.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이 해설지에서는 각 지문들, 문제들을 읽으며 제가 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했어야 할 '생각들' 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이 해설지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과 '비교' 하며 원칙을 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해설의 내용을 이해한 뒤에는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시 스스로 해설해보면서 본인 스스로 '필연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해질 때, 여러분들의 국어영역 실력은 몰라보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만을 기대하며 따라와 봅시다!

P step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기서도 한번 더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겨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남이 떠먹여준 건 반드시 체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꼭꼭 씹어먹읍시다.

스스로, 생각을 비교하며 체화한다. 간단하죠? 이제 바로 시작해봅시다. 참고로 이 해설지는 편집 상의 문제로 지문의 활자만을 제시합니다. 밑줄이나 [A] 등의 표시는 지문 원본을 참고해주세요!

2. 운문문학 해결하기

[1~4]

P step에서 다뤘듯이, 문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보기〉부터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기〉 먼저 확인해 봅시다.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보기〉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 있네요. (다) 시인 '서해'에 관한 〈보기〉인데,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네요. 일단 지문 읽어 봅시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한 연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읽어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먼저 조금 전까지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고 하네요. '어디로 갔나' 부분에 굵은 글씨 처리된 이유는 시의 상황을 제시하는 어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의 핵심은 '상황과 반응!' '어디로 갔나'라고 했으니 누군가가 부재한 상황이네요! 이건 팁으로 제시하는 건데, 부재한 상황이 제시되면 99% 이상 반응으로는 '그리움'이 나옵니다. 부재했는데 '그래 너 없이 잘 살게!'라는 내용은 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대상이 없어서 그립고 서러운 반응을 보이죠.

아무튼 밥상도 그대론데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하네요! 말도 없고, 내 목소리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부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옆구리 담괴가 또 도진 것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갔었거나 옆구리가 아파서 대답을 못했던 적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둠 속..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것도 상황의 일종이니 체크를 해주어야겠죠! 밤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구나..!

그러고 나서 혹시나 그 사람이 올까 밖을 보는데 그냥 풀이 죽는대요. 풀이 죽었다는 '반응' 체크해줘야겠죠! 왜 풀이 죽었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하지 못 해도 괜찮습니다. '풀이 죽는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가 세차게 내려서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크게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약간 체념적인 '반응'이 있는 듯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해설을 길게 제시했지만,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예요. 지문의 '객관적인 내용', 즉 '비가 오는 밤에 누군가가 부재하고, 풀이 죽고 체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해석은 할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선 위의 내용 중 보이는 것만 '빠르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시 한 번 봅시다.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일단 '어두운 방 안'이라는 공간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간은 '상황'에 해당하니 당연히 체크를 해두어야겠죠? 그리고 '어두운, 빠알간' 등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네요! 이런 게 위에서 말한 특이사항이 되는 겁니다. 왠지 평가원이 출제할 것만 같은 그런 표현법들이요! 이 감은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풀다보면 얻게 되실 겁니다. 역시 P step에서 강조했지만,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어요. 보이면 땡큐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네요. 상황 자체가 어떤 아이가 아픈 상태고, 그 아이를 할머니가 간호하고 있나봐요. 그 뒤 '눈 속!' 겨울이군요. (시간적 배경 – 상황) 겨울 눈 속을 헤치며 아버지가 약을 들고 돌아오셨네요. 화자는 산수유(약)를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옷자락에 볼을 말없이 부비고 있네요. 상황이 그려지시죠? 시는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읽어주면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할머니가 간호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약을 사오셨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모습들..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상의 전환이란 개념은 이렇게 뭔가 시가 두 부분으로 끊어지는 듯한 구간을 말합니다. 위의 시에서는 아이가 아프던 장면에서 화자가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즉 '시간이 흐른'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도시라는 공간도 제시하고 있구요. 여기서 시상의 전환을 알아차릴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흘렀다는 '상황'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반응'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해 보세요.

이런 서른 살이 화자는 '서럽다'고 합니다. 서럽다는 게 뭔가요? 시간이 흘렀다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 즉 '반응'이 되겠네요. 나이를 먹은 게 서럽다는 것이죠. 그 서러운 서른 살에 아버지의 옷자락을 느낀다고 해요!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반응'을 잡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사주신 산수유 열매가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다시 한 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껏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어떤 주관적인 해석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 즉 '상황과 반응'만을 가지고 읽어가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상황과 반응 같은 '객관적인 요소'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해설의 내용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예요. 저와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이 시는 그래도 조금 쉽네요. 화자는 아직 서해에는 가보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 시의 상황인거예요. 화자가 아직 서해를 가지 않았다! 그곳 바다도 여느 바다와 똑같을 것인데, 화자는 왜 안 가나 보니 당신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 안 가겠다는 거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된다면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를 좋아해서 정확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서해까지 갔는데 당신을 못 찾으면 너무 슬플 테니까 안 갈 거야!'라는 거예요. 이정도 생각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그 서해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자는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데 서해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보기〉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니, 화자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보러 가지는 않는 그런 역설적인 태도를 바다의 다양한 의미 (갯개펄에 작은 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통상적인 바다의 의미와 자신의 마음속에서 파도치는 등)를 통해 드러내고 있네요! 이러면 이 시가 완전히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깨달아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찾은 '객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쓰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1.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4%	5%	84%	1%

– 먼저 공통점을 묻는 문제네요. P step에서 배운 내용 복습하고 갑시다.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거시적인 정답의 후보'를 먼저 고르고 가자고 했어요. '시적 정서를 드러낸다'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2번 선지와 '현재 상황을 나타낸다'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4번 선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감각적 심상'이요? 역시 P step에서 배웠지만, '감각적 심상' 역시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시든 상관 없이 4번 선지가 정답이겠네요. '감각적 심상'과 '현재 상황'은 '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FAQ
Q : '현재' 상황은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작품 전체적으로 '과거 회상'만 하는 경우엔 '현재'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A :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즉 평가원이 변별 요소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제 생각은, 어찌 되었든 '과거 회상'을 하는 시간은 '현재'이므로 '과거 회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현재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마 중요하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불안하다면 '현재' 상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네요.

사실 시험장에선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이런 태도가 쌓이면 문학 문제 풀이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 더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뒷북 해설

① (가)의 경우 '~하는데 어디로 갔나'의 구절이 대응하며 반복되니 대구의 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2연, 3연에서도 '~가 ~고 ~시었다'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대구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구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명확한 기준을 가진 것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다만 (다)는 확실히 대구법이 쓰이지 않았으니, 1번 선지가 답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로 대구법과 같은 '규칙성 있는' 표현법이 쓰이면 리듬감은 자동 허용입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FAQ
Q : 대구법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A : 일단 확실한 건, 대구법을 답으로 내고 싶으면 이렇게 애매하게 출제하지 않고 '누가 봐도 확실한 대구법'을 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대구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개념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가장 싫어해요! 다만 설명을 드리면 대구법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ex)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은 ~가 듣는다.'의 반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은 ~해서 ~을 남긴다.'의 반복

따라서, (다)의 '~모르겠기에', '-ㅂ니다' 등의 반복은 대구법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미의 반복이니까요. 만약 얘를 대구법이라고 인정한다면, 아마 거의 모든 문장이 대구법이 될 겁니다. 어미의 반복은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② 의인법을 묻고 있습니다. 바다가 몸을 뒤척인다고 표현한 (다) 정도를 제외하곤 찾기 힘드네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표현하는 것이 의인법이라고 했죠?

③ 역시 (다)의 1연, 3연 등에서 도치가 나타나지만, 나머지 지문에선 찾기 힘듭니다. (가)의 마지막 연 정도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물론 도치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허용하기 힘들겠죠?

④ (가)에서는 '냄새, 비, 어둠' 같은 감각적 심상을 통해 누군가가 부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나)에서는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 등의 감각적 심상을 통해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내린다는 시각적 심상으로 겨울이라는 상황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죠. 이만큼 이 선지가 넓은 범위의 선지입니다. 저처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앞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뒷북해설의 내용은 시험장에선 웬만하면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공부와 생각을 위한 해설입니다. (다)에서는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이 부재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⑤ (나)의 4연에는 '아'와 같은 감탄사가 있지만, 나머지 작품에선 찾아보기 힘드네요.

이 지문은 첫 지문이다보니 공통점 문제를 이토록 자세히 해설했지만, 앞으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 몇몇 개념어를 제외하곤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통점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2.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	3%	86%	8%

– 다음 문제 봅시다. (가)시와 (나)시를 비교하라고 하네요. 운문문학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상황과 반응'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토대로 허용할지 말지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해결해봅시다.

① 일단 독백적 어조는 맞죠. 혼잣말 하고 있고 상대의 리액션이 없으니까요. 이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 즉 화자의 마음속(화자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선지네요.

② (나)시에서 과거와 현재 모두 '눈이 내리는 상황'이네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고'있으니까요. 이 눈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어때요? 딱히 틀린 것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틀렸나요? 아니죠? 그럼 허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슬슬? 뭐 혹은 성탄제, 산수유처럼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이 되는 부분들은 모두 매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③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 (가)는 확실히 없고 (나)에는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선지구요. 이 과거 장면도 결국 화자의 상황에 해당하기에, 상황을 집요하게 체크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네요. 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이 기본인 시에서 시간이 변화한다면 평가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 읽으면서 생각해두자!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네요.

FAQ
Q : (가)의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잠시 누웠나, /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없나요?
A : 과거 장면 묘사가 되려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 구절은 '현재' 저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런 추측을 하는 순간은 현재잖아요.

④ '그리움'이란, (가)시와 (나)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응'이네요. 그런데 (나)시에는 그리움이 없다고 하니 허용할 수 없는 선지가 되네요. 답은 4번이네요. 역시 객관적인 내용만 가지고 답을 내고 있죠?

⑤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란 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비문학으로 치면 '제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시의 상황과 반응을 관통하는 시어 같은걸 말하죠. 보통은 제목이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가)시의 빗발이나, (나)시의 눈 혹은 산수유 열매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라는 건 사실 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재가 없는 비문학 지문을 상상해보세요. 글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 선지도 윗 문제의 4번 선지처럼 '시라면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됩니다.

3.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	90%	2%	2%

① 마음이 평온하다? (가)시의 전체적인 반응을 봤을 때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의 밥상을 보고 평온함을 느끼고 있지도 않구요. 허용할 수 없는, '개소리'네요. 누군가가 부재하고 거기서 풀이 죽어있는 '상황과 반응'을 봤을 때 이 선지는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선지겠죠? 이게 바로 수능 문학에서 '근거가 있어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반응'이라는 근거!

② ㉡이 화자와 '이 사람'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 시에 그런 '상황'이 드러났나요? 둘이 소통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오히려 대상이 '부재'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소통은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③ 지문을 보니 ㉢ 위에서 화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이 ㉢인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전과 달리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가요? 부재한 상황, 그리

워하는 반응을 토대로 봤을 때도 딱히 틀린 것이 없군요. 이런 게 바로 맞는 선지인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에 누군가는 허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선지!

④⑤ '배신감, 다짐'은 반응의 일종인데, (가)시에서 이런 반응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둘 다 허용 불가한 선지가 되겠네요!

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8%	81%	2%

①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고,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긴다... '상황과 반응'으로 봤을 때 딱히 틀린 것은 없네요.

② 그곳 바다는 서해를 말하는데 아직 안 가봤으니 알지 못 할테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가봐서 알고 있는 바다인가봐요. 근데 둘 다 '비슷하다'고 하고 있으니, 즉 '근거'가 있으니 허용 가능하네요.

③ 2연에서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는 것 충분히 허용되고, 그 바다가 '멀리서' 몸을 뒤척인다니까 화자와 멀다는 것도 허용이 되겠어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건지 마음 속의 거리가 멀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자와 당신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건 충분히 허용이 되시죠? 그럼 맞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허용'해주는 겁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④ '의지'라고 했습니다. 3번 문제의 5번 선지의 '다짐'처럼 '의지'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지'라는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해에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온다면 매우 합당한 해석이지만, 4번 선지는 '서해'에 '가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화자는 서해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4번 선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틀린 선지네요. 평가원의 '허용 범위'에 대해 대충 감이 오시죠?

⑤ 시의 상황과 반응 및 시구를 통해 충분히 허용이 되겠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상황과 반응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그것을 토대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이게 시문학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이걸 하려면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의 학습은 필수니까, 꼭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5~7]

역시 〈보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보 기〉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 · 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자연 속에서의 생태학적 상상력과 관련된 작품들인가 봅니다. 뭐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로운 것으로 서술하는 내용인가 봐요. 이렇게 대충 주제를 안 채로 지문을 읽어 봅시다.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웁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뇨

햇발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롯이라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

[11~15]

처음으로 고전시가가 등장했네요. 다를 건 없습니다. 역시 〈보기〉 먼저 확인해 봅시다!

〈보 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에 대한 〈보기〉입니다.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면서 강호, 즉 '자연'을 선택한다! 화자의 상황과 반응 모두를 알려주는 큰 힌트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겠어요.

〈보 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나)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네요.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이야기해주려나 봅니다. 게으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러 갑시다.

(가)

문장(文章)을 ᄒᆞ쟈 ᄒᆞ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 문장을 하자 하니 글자를 알면 고통스럽고

공맹(孔孟)을 비호려 ᄒᆞ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 공맹을 배우고자 하니 도를 알기도 어렵다.

이 내 몸 쓸 ᄃᆡ 업ᄉᆞ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 이 내 몸 쓸 데 없으니 농사나 짓자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絕交)**ᄒᆞ**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ᄒᆞ**야

→ 속세에 절교하고 자연과 어울리자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ᄅᆞᆷ 업시 늘거 가니

→ 자연 속에서 시름 없이 늙어 가니

이 듕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헌**ᄉᆞ ᄒᆞᆯ**가 두려워라

→ 이 중의 무한지락을 한사할까 두려워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ᄂᆞᆫ 알기 슬희여라

→ 인간의 벗이 있단 말인가 나는 알기 슬프다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ᄂᆞᆫ 알기 즐거웨라

→ 물밖에 벗이 없단 말이냐 나는 알기 즐겁다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ᄒᆞ노라

→ 슬프거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한다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ᄒᆞᆯ ᄉᆞᆫ 아마도 풍진(風塵) 붕우(朋友)

→ 유정하고 무심한 건 아마도 풍진 붕우고

무심(無心)코 유정(有情)ᄒᆞᆯ ᄉᆞᆫ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 무심하고 유정한 건 아마도 강호 구로다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ᄭᆡ ᄃᆞᆮ른가 ᄒᆞ노라

→ 이제야 옳은 것을 깨달았나 한다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ᄒᆞᆯ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骸歸)*ᄒᆞᆯ 제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릴 때와 걸해귀가 사직을 간청할 때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ᄒᆞ리

→ 호연 행색을 누가 아니 부러워할까

알고도 부지지(不知止)*ᄒᆞ니 나도 몰나 ᄒᆞ노라

→ 알고도 (속세에 대한 욕심을) 그만두질 못하니 나도 모르겠다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ᄒᆞ니 므스 일 머므ᄂᆞ뇨

→ 인간 세상의 풍우가 많으니 무슨 일 머무는가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ᄒᆞ니 므스 일 아니 가리

→ 물밖에 연하 만족하니 무슨 일이 아니 갈까

이제ᄂᆞᆫ 가려 정(定)ᄒᆞ니 일흥(逸興) 계워 ᄒᆞ노라

→ 이제는 가서 정하려니까 신난당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제 해설이 항상 그렇듯, 아래의 현대어풀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저 정도 읽었다는 것이에요. '현대어와 비슷하게 대충.' 고전시가 읽기의 기본적인 태도 기억하시죠?

나중에 문제 풀 때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겠지만, 처음엔 대충 읽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좋아한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것이라도, 심지어 EBS 연계 지문이 아니더라도 고전시가를 비롯한 시가 문학 해결법은 똑같아요. 화자의 상황, 반응 같은 '팩트'에만 주목해서 읽기. 이 지문은 더 이상 해석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 좋아한다~ 정도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솥발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깁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 역시 그냥 대~충 읽자고 했습니다. 화자가 게으름 귀신에게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쭉 읊어주고, 게으름 귀신이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쭉 읊어주네요. 이걸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고 빠르게 넘어가세요. 수필은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도, 대충 읽어도 어차피 기억하는 정도는 비슷할 겁니다. 문제풀 때 물어보는 내용 부분만 열심히 읽으면 충분해요!

11.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4%	5%	4%	6%	1%

– 역시 답의 후보를 먼저 골라 봅시다. '글쓴이의 인식'이라는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1번 선지가 일단 유력해요. 5번 선지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시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와 대비'된다는 것에서 꽤나 미시적으로 변해버리네요. 1번 선지부터 판단해 봅시다.

① '자연↔속세', '근면↔게으름', 대조적 소재가 있으니 완벽하게 정답이네요. 위에서 봤듯이 '글쓴이의 인식' 같은 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지문을 제가 읽은 정도로만 대충 읽어도 충분히 바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② 명령적 어조가 없어요. 네... 없는데 어떡해요ㅜㅜ

③ 공간의 이동이 있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체크했겠죠?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자세'는 허용이 될 듯해요. 각각 '자연', '게으름'이라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④ (가)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체적인 청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서는 게으름 귀신이라는 청자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라는 근거는 없네요. 총체적으로 틀린 선지입니다.

⑤ 계절의 변화요? 그런 거 전혀 없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전에선 2~5번 선지의 해설처럼 진짜 미친 듯이 왔다갔다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1번 선지 같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답인 선지' 위주로 먼저 판단하셔야해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아둡시다.

12.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5%	15%	53%	11%

① 〈제1장〉의 초장에서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 고 했습니다.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면, '글자' 같은 어휘가 자연스레 속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글자를 알면 근심이 있으니 자연을 택했다!'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녹수 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간다... 충분히 자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고르신 분들은 고전시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겁니다. 고전시가는 경험을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R step에서도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치를 확실하게 쌓읍시다.

③ 내 분인가 하노라.. 분수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매우 쉽게 허용할 수 있을 겁니다.

④ 9장의 초장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각주에 의해 벼슬, 사직 같은 '속세' 를 등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에서 말하는 '호연 행색' 은 저렇게 속세를 등질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이는 속세에 미련을 갖는다는 말과 정반대로 대치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좀 더 쉽게, 벼슬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속세에 미련을 갖는다고 하는 걸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작품의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인 '고전시가에 대한 감 +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태도.' 이 두 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⑤ 9장의 종장에서 알고도 몰라 한다고 했으니 갈등하는 모습을 허용할 수 있고, 11장의 종장에서는 '일흥 계워 한다' 라고 했으니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흥 계워 한다' 가 왜 만족하는 모습인지 모르시겠다면, 역시 고전시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꾸 고전시가 공부하라니까 짜증나죠? 고전시가에 대한 더 자세한 학습 방법은 R step에서 다룹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해설의 내용만 이해하고 갑시다.

1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7%	10%	10%	56%

– 일단 '절교' 와 '위우' 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절교라는 말에서도 바로 느낌이 오기도 하고, '홍진' 을 절교한다고 했으니 절교는 손절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네요. 참고로 '홍진' 이 '속세' 를 의미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위우' 하는 대상은 '백운' , 즉 자연이니 긍정적인 느낌이구요. 싫어하는 것, 즉 속세와 관련된 것은 절교하고 자연과 관련된 것은 위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① '인간의 벗' 은 속세와 관련된 대상이죠? 절교해야죠.

② '붕우' 는 '유정코 무심한' 대상이자, '강호 구로' 라는 자연과 대비되는 대상입니다. ('강호 구로' 는 무심코 유정하니까요. 뭔가 반대로 쓰여 있으니 반대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붕우' 는 속세와 관련된 대상이니 절교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해당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고전시가에 대한 기본적인 감 +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 즉 '팩트' 를 통해 풀어주시면 됩니다.

뒷북 해설

'유정코 무심' 과 '무심코 유정' 은 사실 같은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A이고 B' 와 'B이고 A' 는 같은 말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둘은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정코 무심' 의 경우 '정이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서로에게 무심한' 인간들의 속세를 비판하는 어휘입니다. 반면 '무심코 유정' 은 '무심한 척하면서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정을 주는' 자연을 예찬하는 어휘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웠겠지만, 몰랐더라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시가를 많이 보셨다면 '자연과 속세의 대비 구도' 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연과 속세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 과 반대되는 것은 자동으로 '속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③ 백운과의 위우, 무한지락. 모두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 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④ 2번 선지에서 '구로' 는 자연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세' 인지 '자연' 인지만 생각하면 되고, '구로' 가 정확히 무엇인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물외에 연하 족' 역시 바로 위의 '인간' 과 대비되는, '자연' 과 관련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로 같은 자연이 물외에 연하 족 같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지문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그때서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태도를 잊지 마세요.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됩니다. 물론 이 태도를 가지려면 고전시가 공부 정말 많이 해야겠죠?

⑤ '물외에 벗' 과 '위우하는 것' 은 모두 '자연' 과 관련된 내용입

니다. 반면 '유정코 무심' 한 것은 '붕우', 즉 '속세' 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연과 속세를 연결 짓고 있으니 얘가 답이네요. 앞 선지에서 판단한 내용이 다음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네요.

1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	6%	77%	7%

① '공맹을 배우는 것' 은 '도', 즉 '속세' 와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 '성대농포' 는 '농사', 즉 '자연' 과 관련된 것이니 허용하기 힘드네요.

② '태초와 하나가' 되는 것은 게으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굳센 쇠' 는 부서지는, 즉 게으르지 않고 근면한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으르고 근면하다' 는 대립 요소가 근거로 굳건한 이상 둘이 대응되는 건 허용하기 힘드네요.

③ '녹수 청산', 즉 자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는 건 허용할 수 있는데, '깨끗한 것' 은 근면한 사람, '길한 것' 은 게으름의 장점을 의미하니 허용하기 힘드네요.

④ 옳다는 걸 깨닫고 있으니 현재의 삶, 즉 자연의 삶이 옳다고 한다고 할 수 있고, '고칠 터이니' 를 통해 게으름을 받아들이겠다, 즉 게으름을 탓한 나를 반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니 얘가 답이네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⑤ '풍우 다' 한 것은 속세와 관련된 것이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일단 틀렸네요. 또한 (나)의 화자가 '시비의 소리' 에 흔들린 적도 없으니 허용하기 힘듭니다. (나)의 화자는 시비의 소리가 나도 게을러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 흔들렸다고 한 적은 없어요.

15.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1%	68%	7%	6%

① 물론 귀신한테 말을 걸고 있으니 자신을 살펴본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귀신한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말을 거는 형식' 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딱히 틀린 게 없는 선지라는 겁니다!

② 네 게으름의 부정적인 측면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는 왜 고르셨을까요..? 솥발이 부러진 것, 종들이 죄를 지은 것 등이 모두 '집안의 대소사'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③ 〈보기〉를 보아하니, '게으름의 양면성' 이 의미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제시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3번 선지는 게으름의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양면성으로 보기 힘드네요. 이런 '상세한 내용일치' 의 경우 A step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은 맛보기로 가져왔습니다.

④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 허용할 수 있죠?

⑤ 게으름 덕분에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 가 분분한 상황을 면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다는 내용을 허용할 수가 있겠네요.

고전시가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 그리고 '허용 가능성 평가' 라는 문학 선지 판단의 대원칙을 잊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게 다 맞혀냈을 거예요. 지금은 이 고전시가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 한 달만 공부하시면 고전시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33~36]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가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먼저 늘 그렇듯이 [줄거리]부터 확인합시다. '유세기'가 '백공'네와 결혼했다고 생각한 '선생'이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네요. 일단 '유세기'와 '선생'은 가족 관계일 것이고, '백공'네 가족과는 결혼할 뻔 했다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보기〉에서 말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꽉 잡은 채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달리면 어려울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니, '백공'이 그 갈등을 중재하려는 것 같습니다. '선생 형제' 한테 가서 '흔쾌히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해를 풀어야 하니, 웃는 낯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보아하니 결혼 이야기는 '백공'이 마음대로 한 것이었네요. 처음엔 '백공'을 여자라고 생각했더라도, 여기서 '백공'이 유세기와 혼사를 맺으려는 집안의 아버지임을 알아내야 합니다. 인물관계 잡기!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백공의 해명을 들은 '선생'과 '승상'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해가 풀렸으니까! 나아가 원래 백공이 대화를 건 대상은 '선생 형제'였는데 기뻐하는 건 '선생, 승상'임을 토대로 '승상' 역시 '유세기'의 가족임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인물관계를 잡는 게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이처럼 새로 나온 인물(승상)이 정말로 뉴페이스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어떤 인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토대로 관계를 만들어주셔야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백공'의 딸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쿨하네요. 이제 '선생'은 '한림'을 불러 훈계를 하고, 이 '한림'은 그 말을 잘 들었대요. '소 소저'와 잘 살고 그러기까지하고 말이죠. 엥 그런데 '한림'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얘는 정말 뉴페이스일까요? 아니죠! '선생'이 이 맥락에서 훈계를 할 만한 대상은 '유세기'뿐일 테니, '한림'은 곧 '유세기'를 의미하겠습니다. 아 어려워요.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 관계를 잡지 못하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지문은 다행히 문제가 쉽게 나왔지만, 만약 조금만 더 치사하게 물어봤다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저처럼 인물관계를 잡으며 지문을 이해하

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승상'의 아들 '세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갑자기 '세형'에 대해서 왜 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유추해보니, 아마 좀 호탕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인물을 설명해준 이유가 있겠죠?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 봅시다.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하시니 그 위의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장 씨'라는 인물이 '이화정'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과 슬픔'이라는 심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보아하니 뭐 '공주'라는 인물한테 천대받고 그래서 슬프고 그렇다네요. 자세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장 씨가 불만이 가득하다는 내용만 잡고 가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형'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써먹으려고 세형의 외양 묘사를 길게 해 준 것이었네요. 세형이 장 씨를 위로하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부마'가 '세형'을 의미한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계속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인지를 생각해주셔야 해요! 장 씨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만 잡아주시면 충분해요! (중략) 이전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네요. 잘 하고 있죠?

33.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7%	62%	11%	8%

① 백공이 거짓말로 혼사를 꾸며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백공'이 '선생 형제'에게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았어야해요!

② '한림'이 '유세기'인 것을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백공'이 거짓말을 해서 '한림', 즉 '유세기'가 쫓겨날 뻔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뉴페이스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③ 이번엔 '선생'과 '승상'의 관계를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선생과 승상은 '백공'의 말을 듣고 동시에 안심하고 있었으니, 둘의 '갈등'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선생 형제'가 '선생+승상'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승상'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보고 이게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인물관계를 체크하는 건 기본이에요.

④ 이 일 때문에 '한림', 즉 '유세기'가 쫓겨날 뻔 했고, 나중엔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한 소리 들었죠? 역시 '인물관계'를 통한 내용이해를 묻고 있네요.

⑤ 1번 선지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를 위해 거짓말을 쳤다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정도 지문도 이해할 수 있어야해요!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준이니까요.

3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9%	77%	6%

① 모두 과거 이야기가 있죠? [A]와 [B]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장 씨'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니까요.

② 비유적 진술 찾아봅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찾아야해요. 지문 읽으면서부터 비유적 진술을 체크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니까요. [A]에는 '하늘과 땅 같도다', [B]에는 '하졸이 머릿수나 ~ 같게 만드옵니다.' 등에서 찾을 수 있네요.

③ '원망'을 바로 찾기는 힘드니 '의문형 표현'부터 찾아봅시다. [A] 앞 부분에 '~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에서 원망을 읽어낼 수 있겠네요. 하지만 [B]에서는 '~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에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원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죠? 인물의 발화가 어떤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행동의 '이유'를 생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④ 우월한 지위를 드러낸다구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존댓말하면서 애절하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장 씨'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을 드러냈다는 '근거'가 없으니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⑤ [A]에서는 '낭군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라거나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고 있고, [B]는 아예 대부분이 과거의 일들이죠?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35.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83%	7%	4%

– '이화정'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이화정은 '장 씨'가 자신의 한탄을 시작하는 공간이었고, 두 번째 이화정은 '세형'이 '장 씨'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게 꽁냥대는 공간이었죠. 쉽죠?

① 학문 연마... 덕행... 지문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죠?

② '불신', '조소' 같은 것도 역시 지문을 이해했다면 고를 수가 없네요.

③ 우리가 찾아둔 거죠? 바로 답이네요.

④ 계책을 꾸민 적도 없고, 두 번째 '이화정'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하면 해소했지 인내하지는 않았겠죠?

⑤ 두 번째 '이화정'이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내용이 아니죠?

36.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8%	58%	11%	17%

① '유세기'와 '유세형'이 '승상'이라는 매개로 연결되고 있으니 둘이 한 가문인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모두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연결된다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가족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이들이 '유세기'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니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 그리고, '유세형'이 '장 씨'의 말을 듣고 '공주'를 멀리 하는 것 등은 허용할 수 있는데, 이게 '가법과 인물 성격 간의 대립'이라구요? 애초에 인물의 '성격'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도 않았고, '유세기'가 '가법'을 지키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에요! '유세기'는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날 뻔 했을 뿐이죠. 내용을 이해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④ '백공', '천자'는 모두 혼인 당사자가 아니죠?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백공의 딸'이 다른 곳에 시집감으로써 해소되었고, '선생'의 훈계를 받고 '소 소저'와 행복하게 지냈다고 했으니 이야기의 마무리까지 허용할 수 있겠네요.

인물관계를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지 생각한다.'라는 기본적인 인물관계 체크의 태도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43~45]

이번에도 두 작품에 대한 〈보기〉가 있네요. 미리 확인해봅시다.

>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두 작품은 '공기'와 '바람'의 속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죠? 혹시나 이런 내용이 보이면 체크하면 되겠어요.

〈보 기〉

>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나) 작품에 대한 〈보기〉입니다.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 관점에서 읽어보면 되겠네요.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음... 네 이번 현대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체크하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선지에서!